

1. 한 시간 남짓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던 차량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길을 막아 선 삼중 사중의 바리케이트와 무장한 군인들의 검문을 통과한 후 북쪽으로 향하던 차는 다시 멈춰서고 말았다. 민간인 차량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통제구역 앞에서 우리는 끝내 운전대를 남으로 돌려야만 했다. 북쪽은 언제부터인가 불편한 곳이 되었다. 우리 국토의 북쪽은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영역일 뿐 현실에선 60년이 넘도록 차단된 금지의 땅이다. 마치 허리 잘린 몸뚱이처럼 불완전한 형상의 기형이 바로 우리 국토의 현실이다.

동해안이 북적거린다. 바다는 오랫동안 인간들에게 낭만성과 더불어서 시원의 동경을 제공하지 않았던가. 각종 기암 괴석과 모래 해변 그리고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은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여가의 명소이다. 하지만 이 천혜의 관광지역을 찾는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물리적, 심리적 불편함이 있다. 바로 아름다운 천혜의 경관을 가로 막은 철책선과 군사시설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을 비롯한 자연 절경에는 어김없이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산 정상과 바다 해안선 그리고 도시의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끝과 시작은 전략적 군사요충지화 되어 각종 군부대와 시설이 장악한지 오래다. 조국 분단의 현실은 이렇게 국토의 표면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지대화 하였다. 동해안도 결코 예외일 수 없듯이 해안과 바다를 막아선 차가운 경계면은 당연스럽게 우리의 접근과 조망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지금 그 곳, 동해안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강원도 동해안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차단하였던 철책선과 군 초소가 사라진 자리에 현대식 디자인의 건물들이 감시 시설을 대체하고 있다. 이 변화가 반가운 점은 철책에 가로 막혀 있던 해안과 자연으로의 출입이 비교적 용이해진 부분이고, 안타까운 점은 풍광이 뛰어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각종 위락편이시설과 대형 리조트들이 차곡차곡 해안선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만스러운 점은 어렵사리 열린 해안의 곳곳은 여전히 불편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경관에 대한 완전한 조망과 향유는 허락되지 않았으며, 반만 열린 틈새를 통해 바라 본 바다는 아직도 저 멀리에 있을 뿐이다. 이 짜증스러운 경험 뒤에 수반되어지는 현실인식과정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아픈 성장통과 같다. 이처럼 한 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모여든 피서객들의 여유로운 한 때는 잠시 주어진 제한적 열림이다. 시선을 좌우로 돌려봐도 사방은 철통같이 막혀 있다. '출입금지' 또는 '군사지역'이라는 팻말이 보여주기 식의 군사 표식이라면 지금 이 곳에 존재하고 있는 군용 철책선과 감시 시설은 실체를 가진 대상들이다. 물리적 접근을 허용치 않는 무언의 경고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한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강압적이고 딱딱하다. 이념과 체제라는 해묵은 단어를 떠 올리지 않더라도 한국 전쟁의 상처가 대물림 되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군사'라는 용어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2. <<보이지 않는 풍경, Invisible Scenery>>에서 김전기의 시선이 머문 곳은 자연과 일상의 경계지점이다. 엄밀히 표현하자면 남북한의 분단상황이 야기한 군사적 긴장지대와 민간인의 삶이 교차, 충돌하는 공간의 안과 밖이다. 60년간 지속되어 온 분단 상황은 우리나라 도처에 독특한 환경과 지대를 구축하였다. 물론 자연발생적인 구조물과는 다소 거리가 먼 군사적 용도이기에 사진가의 접근은 그 자체로 다분히 도전적이고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김전기의 사진들은 풍경(Landscape)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워 분단이 만들어 낸 색다른 현실 풍경에 주목하고 있다. 작가의 시선이 다가간 세계는 일상의 삶과 현대사의 질곡이 겹치고 부딪혀 생성되는 이질적인 영역이다. 즉, 분단 이후 이 땅에 지속되어 왔던 현실 구조에 균열이 가는 상황에 대한 접근과 목격이 가능한 장소와 공간을 뜻한다. 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왔던, 있어야만 했던 역사적 상징물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새롭게 변형, 대체되는 사건에 대한 사진적 증언이기도 하다. 남북간 냉전의 산물이자 역사적 상징물의 해체는 단순히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물며 전쟁과 이념에 대한 엄격한 훈육과 실천 윤리로 무장되어진 이 땅의 국민들에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아니던가. 따라서 현 상황의 변화는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의 '경계' 지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일대 혼란을 야기한다. 우리의 무뎠던 시선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난해한 풍경의 내부에 김전기의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전기의 <<보이지 않는 풍경, Invisible Scenery>>작업들은 철책선과 군사시설이 해체되는 장면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된다. 여기 저기에 널 부러진 콘크리트 덩어리, 녹슨 철조망, 철책 구조물, 텅 빈 나무반, 버려진 물건들은 일견 재개발 지역의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사진의 전통적인 어법을 따르는 이 사진들은 다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록물의 성격을 띤다. 단순한 배경 위에 놓여진 정물(Still life)처럼 사진 속 대상들은 명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피사체들은 사실 군이라는 단단한 경계 내부에 남겨진 역사의 잔상이자 흔적들이다. 여기에서 거론하는 <경계에서>라고 이름 붙여진 일련의 사진들은 군 시설의 해체와 재구축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의 물리적 접근과 실행으로 밝혀진 경계 안과 밖의 탐색 과정처럼 보인다. 이는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 여러 대상물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속에 밝혀진 군 시설 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감추어진 진실의 노출과 폭로와는 거리가 멀다. 버려진 군화, 장갑, 깨진 유리 파편들 그리고 각종 군용 장비들은 너무 무덤덤하고 하찮게 묘사되어 있어 오히려 친숙해 보이기 까지 한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 내부의 디테일 한 현장들을 대하는 작가의 시선이 포착한 장면 속에서 사라져 버린 긴장과 불안이야 말로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할 분단 상황의 또 다른 실체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찍은 군사시설 내부 사진들은 모두 죽어 있다. 군인들의 생활공간이었던 내무반, 취사장, 세면실 등에는 키치적인 문장과 도상만이 여기 저기에 남겨져 있을 뿐이다. 당장이라도 적을 향해 뛰쳐나갈 것만 같은 군인의 기상과 전쟁 무기의 살벌함이 사라진 공간들은 본래의 존재감을 상실하였다. 2012년 작품 '지워지는 이름'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퇴색되어버린 군부대명을 통해 기념비성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날카로운 철책과 거대한 바위의 불편한 만남을 포착한 '갈혀버린 바위, 2012'는 우리를 향해 조여오는 분단의 무게를 가시화한다. '실외 사격장, 2012'은 해변가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사격 표적 판을 촬영한 사진이다. 수 많은 적을 겨냥 하 듯 촘촘하게 세워진 표적 판들은 바다로부터 상륙하는 적을 상상케 한다. 하지만 시원하게 펼쳐진 공해상을 향한 총구의 살기와는 무관하게 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얇은 널빤지 위에 부착된 표적 지는 허구의 적을 가상한 채 반복되는 무감각한 살상훈련의 표적이 되어 주고 있다. <경계에서> 연작은 군사 시설과 주변 지역에 발생한 변화에 대한 사진적 기록과 더불어 두껍게 가려졌던 장막 내,외부를 탐색하는 작가의 관찰자적 태도가 엿보이는 작업들이다. 따라서 김전기의 정직한 시선에 노출된 경계 내, 외부의 모습들은 거대한 역사의 무게가 사라진 후 남겨진 것들의 파편들로 다시 채워지는 혼돈의 풍경인 것이다.

한편 일상의 단면을 기록하고 있는 김전기의 <겹쳐지는 것들>에서 경계 주변의 섞임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업의 시기상 최근에 촬영된 이미지들이 대부분으로 'ATV 체험장, 2012'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비롯하여 '언어 잡는 사람들, 2012'들은 군사 지역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과 주변 경관을 같은 프레임 안에 배치시킨 장면들이 주를 이룬다. <겹쳐지는 것>들이라는 소제목으로 그룹 지어진 이 사진들은 군사 시설과 주변 환경이 만나는 접점, 특히 일상의 삶이 섞여지는 장소와 상황에 주목한다. 군사 시설 주변에서 해수욕과 낚시를 즐기는 광경이 담긴 2012년 작품 '낚시하는 사람들'과 2013년 작품 '공사중인 전망대'는 군사적 상황이 일상 안으로 들어온 경우이거나 혹은 그와 정반대이다. 사진 속 장면에서 보여 지 듯 아무리 삼엄한 군사 시설의 통제와 감시가 있다 한들 풍요로운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욕구까지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제한적 허용이긴 하나 사람들은 좁은 영역 내에서 불안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감시 받는 해변, 2012'은 철책선 안쪽에 개방된 해수욕장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자율구역'이라는 문구의 역설적 작동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개방된 군사경계선 내부에 몰려 들었다. 해안선 멀리 희미하게 포착된 어떤 지역과 바다, 철책과 형형색색의 텐트들은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서로의 영역이 교차, 충돌하는 다분히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한다. 본 작품은 작가가 증명하고 싶었던 분단 상황에 대한 관점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대변해 주고 있다. 즉, 이 사진의 화면 구성은 현실과 이상, 보여짐과 가려짐, 갈등과 화해의 메시지를 하나의 공간 안에 기묘하게 뒤섞어 놓는다. 높고 단단한 철책으로 차단된 해안의 안과 밖은 결국 하나의 소실점 안에서 '겹쳐지는' 풍경으로 통합되고 있음이다.

'철책 옆 골프장, 2013' 과 '철책 옆 어린이 집, 2012'은 일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군 시설과 삶의 교차점을 직접 제시하는 증거라면, 파노라마 포맷으로 제작된 2012년 작 '해를 마중 나간 사람들'은 새해 일출을 마중 나온 수많은 인파들로 채워진 해안 풍경을 스펙타클한 장면으로 제시한다. 해안선 끝에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뒤쪽 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세련된 디자인의 감시 초소는 군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은폐하기 위한 시각적 완충물이다. 결국 <겹쳐지는 것들> 연작들은 전쟁과 공포의 전략이 일상적 양태로 전이되어 무감각해지는 상황에 대한 시각적 징후이자 목적으로 귀결된다. 이데올로기의 특성은 비가시적 축적에 있다. 선형적인 시간과 역사의 관계항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한편 일상의 삶과 침투,결탁하여 다양한 변이들을 양산한다. 이는 김전기의 <겹쳐지는 것들>사진에서 보여주하고자 하는 어떤 의혹들과 다르지 않다. 그 곳에 당연히 있어 왔던 군사 시설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현대식 감시 초소와 관광 편의시설이 세워지는 '어색한 상황' 마저도 일상에 편재한 무더진 시각의 장으로 함몰되어버리는 현실에 대한 의문이다.

본 전시의 타이틀과 동명의 작업들로 채워진 <보이지 않는 풍경>은 낭만적인 컬러로 물들어 있다. 전통적인 어법의 풍경 사진에 근접한 형식미를 갖춘 <보이지 않는 풍경>은 바라봄의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작가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으로 우리를 끌어 당긴다. 이 사진들에서 보여지는 공통 분모는 텅 빈 공간의 창출을 통한 시선의 분산과 소멸에 있다. 물론 그의 시선의 끝 부분은 여전히 철책선과 감시 초소에 걸쳐져 있지만 말이다. ‘해안선’으로 이름 붙여진 작품들에서 군사용 초소와 철책선은 자연이 선사하는 화려한 빛에 가려진다. 겨울의 세찬 파고에 휩싸인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있는 ‘해안선 2, 2011’ 와 ‘해안선 1, 2012’에서 분단 상황에 노출되어 온 풍경 속 상징물들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회귀한다. 이 사진들은 이러한 점에서 지극히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경계에서>와 <겹쳐지는 것들>에서 주목했던 작품들이 현실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과 증언이라면 여기 펼쳐진 풍경 사진들은 오랫동안 우리 풍경의 일부로 자리해 온 군사시설과 철책선에 대한 무덤덤한 수용이다. 또 다른 작품들에서, 전면에 흔들리는 나무가 있는 사진과 한 겨울 폭설에 덮인 해안 초소가 쓸쓸한 정조를 자아내고 있다면 망망 대해와 삭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초소 사진은 대자연에 대항하는 한 인간의 실존처럼 낯설게 다가온다. 마치 거대한 우주의 순환과 질서 안에서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릴 미약한 존재와 같다. ‘조명 받는 철책, 2013’은 강렬한 인공 조명 아래 촘촘히 세워진 철책선이 골격을 드러낸다. 질푸른 하늘 빛은 어둠이 가져오는 긴장의 밀도를 풍경 내부로 끌어 들였다. 이렇듯 감시 조명과 자연 빛이 뒤섞이는 순간의 철책 풍경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이러니 하게도 군 시설물이 유지해야 할 위장과 은폐, 차단과 방어의 기술은 이 곳에서 오히려 노출과 누설을 통한 심미적 장치로 전환되고 있다. 그의 사진에서 군사점령지대의 밤 풍경은 오히려 이질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는 풍경>은 강렬한 미적 쾌를 사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가상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역설로 전이된다. 이 사진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분단 이후 일상 속에 지속되어 온 긴장 유지와 총체성에 대한 거부이자 와해이다. 어쩌면 우리의 망막에 자리해 왔던 분단 현실에 대한 익숙함마저도 해체시켜 버릴 수 있는 초월적 영역이기도 하다. 결국 작가의 무덤덤한 시선이 바라보는 풍경 너머의 세계는 진부한 이념 대립과 전쟁의 공포, 갈등, 단절, 긴장이 상쇄, 소멸되는 중립 지대이자 유토피아적 공간이다.

3. 김전기의 <<보이지 않는 풍경, Invisible Scenery’ >>은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 형성 된 각종 군사시설물이 일상의 공간과 자연 속으로 섞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사진적 기록이다. 2007 년부터 최근까지 작가는 자신의 생활터전인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고성에서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 7 번 국도 주변의 군 시설물의 해체와 변형 그리고 주변 환경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방대한 양의 흑백, 컬러사진들은 군사용 철책이 제거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군부대 내부의 모습,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군 시설의 실체를 낱알이 보여준다. 또한 이 사진들에서 작가의 시선은 단순히 군사적 경계망의 해체와 철거 과정 속에 변화하는 현실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사진들이 집요하게 추적하는 지점은 시간의 선분 위에서 서서히 구축되어 온 분단 상황과 주변 환경간의 상호 영향이 극명히 보여지는 지형, 장소, 자연, 공간에 대한 다각적, 다층적 영역이다.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보이지 않는 풍경, Invisible Scenery’ >>은 풍경 사진의 전통적 형식미와 분단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투영된 값진 결과물들이다. 그의 사진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인간들이 기억하는 전쟁의 공포는 쉽게 무너지고 지워지는 반면 주변 환경에 남겨진 전쟁의 양상은 훨씬 더 침묵하고 날카롭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 분단 상황은 우리 일상과 주변에 산재한 흔한 풍경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음’은 더 이상 특별할 것 없는 분단 풍경에 대한 역설이자 아이러니가 아닐까. 이렇듯 김전기의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분단의 흔적과 파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결코 보이지 않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그리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위장과 은폐의 기술이 노출시킨 투명한 진실들이다. <<보이지 않는 풍경, Invisible Scenery’ >>에서 작가가 보여준 수 많은 ‘보이지 않는 사실과 증거’들은 결국 분단상황에 대한 순응에서 기인하며, 시각적 과잉이 양산하는 감각의 무덤짐은 ‘보이지 않는 풍경’으로 다가올 뿐이다. 그러함으로 김전기의 사진 들은 길들여진 시선과 무뎠진 판단에 대한 저항이자 날 선 항변이다.

그의 아름다운 컬러 풍경사진들에서 지향하는 초월적 중립지대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직 작가만이 이 답답한 현실상황에서 다가갈 수 없는 세계 너머를 갈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풍경, Invisible Scenery’ >>은 이 땅의 표면 위에 걸쳐진 거추장스러운 장막을 벗겨내는 시각기록프로젝트이다. 우리의 무딘 시선에선 결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차단 막과 감시를 뚫고 들어간 어느 사진가의 땀과 열정은 이제야 비로소 시대와 역사의 명분을 획득하였다. 한 개인이 천착하기엔 무모하리만치 거대하고 위험한 경계지대에서, 김전기의 시선은 오늘도 숨죽여 번득이고 있다.